

2017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1.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삶의 태도 이해하기

대화에서 선생님은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신이 곧 자연이라는 범신론(汎神論)을 주장하였으며,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자연 혹은 신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완전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이 이성적 관조를 통해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스피노자는 자유 의지를 부정하고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2. [출제의도] 모어의 이상 사회 파악하기

제시문은 모어의 유토피아이다. 유토피아는 소유와 생산에 있어 평등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이상 사회이다. 또한 이곳에서는 공동으로 노동하되 불필요한 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시민들이 가능한 한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많은 자유 시간을 갖는다.

3. [출제의도] 흄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흄의 글이다. 흄은 우리의 도덕성이 일종의 감정, 즉 도덕감(道德感)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보았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행복에 유용한 행위에 대해 시인(是認)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4. [출제의도] 석가모니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석가모니의 글이다. 석가모니는 우주 만물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연기설(緣起說)을 통해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보고, 이러한 연기의 법칙을 바탕으로 자비(慈悲)를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탈에 이르러면 무명(無明)에서 벗어나야 하고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거나 극단적인 고행에 집착하는 삶에서도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팔정도(八正道)이다.

5. [출제의도] 마르크스주의와 민주 사회주의의 비교하기

(가)는 마르크스주의, (나)는 민주 사회주의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급진적인 혁명이 발생하고, 그 결과 사유 재산과 계급 및 국가가 소멸된 공산 사회가 도래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국가를 비판하면서 공유제를 바탕으로 부분적인 사회적 소유가 필요하다고 보며, 의회 활동과 같은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혁함으로써 사회주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6. [출제의도] 이이와 정약용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이이, 율은 정약용이다. 이이는 이(理)가 무위이고 기(氣)는 유위이며 이는 통(通)하고 기는 국한(局)된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이가 성(性)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인간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성을 가진

다는 성기호설(性嗜好說)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이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덕이 선천적으로 주어진다고 보았지만, 정약용은 인의예지의 덕이 실천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7. [출제의도] 이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이황의 글이다. 이황은 이와 기가 모두 말할 수 있다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단(四端)은 이의 발현, 칠정(七情)은 기의 발현에 의해 드러나는 감정으로서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각기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8. [출제의도] 플라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플라톤의 글이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현상계를 넘어 이성으로 파악되는 이데아의 세계를 참된 세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좋은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9. [출제의도] 에피쿠로스파와 밀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에피쿠로스, 율은 밀이다. 에피쿠로스는 마음의 불안과 몸의 고통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ataraxia)를 추구하는 쾌락주의를 주장하면서, 행복한 삶은 사회적 활동을 회피하는 은둔적 삶이라고 보았다. 반면 밀은 쾌락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한편 에피쿠로스파와 밀은 불필요한 욕구를 절제하는 삶을 강조하며 감각적·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쾌락이 더 수준 높고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보았다.

10. [출제의도] 키르케고르와 야스퍼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키르케고르, 율은 야스퍼스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 결단을 내릴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야스퍼스는 이성을 통한 합리성으로는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타인과의 연대를 통해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키르케고르와 야스퍼스는 모두 절대자에게 귀의했을 때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1. [출제의도] 장자와 순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장자, 율은 순자이다. 장자는 고요하며 적막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無爲]은 천지의 도(道)이며 덕(德)의 극지로 인간이 행할 바라고 주장하였다. 순자는 하늘이 두려우니나 승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12. [출제의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입장 파악하기

(가)는 자유주의, (나)는 공동체주의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반면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유대감을 중시하며,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13. [출제의도] 정제두의 양명학과 주희의 성리학 비교하기

같은 정제두, 율은 주희이다. 정제두는 앎과 행함을 둘로 갈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고, 주희는 선후를 논할 때는 앎이 우선되어야 하며 경중을 논할 때는 행함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고 선지후행(先知後行)을 주장하였다. 한편 정제두와 주희는 모두 앎과 행함의 일치를 도덕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았다.

14. [출제의도] 하이에크와 케인스의 자본주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하이에크, 율은 케인스이다. 하이에크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생적 질서 회복을 위해 자유 경쟁 체제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케인스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유효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제임스의 실용주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실용주의 사상가 제임스의 글이다. 제임스는 옳은 것이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식과 믿음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실제적 삶의 유용성, 즉 현금 가치(cash value)를 지니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진리란 확고부동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현실 생활을 이롭게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경험과 관찰에 의해 실용성이 증명된 진리가 참된 진리라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벤담과 칸트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벤담, 율은 칸트이다. 벤담은 공리의 원리를 도덕적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보았으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반면 칸트는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도덕적 행위의 기준으로 보았으며, 도덕 법칙은 실천 이성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벤담은 도덕의 목적이 행복의 증진에 있다고 보는 반면, 칸트는 도덕이 행복 실현의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보았다.

17. [출제의도] 왈처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왈처의 입장에서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하는 견해이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합리적 개인들이 선택한 정의의 원칙에 의한 사회적 가치의 공정한 배분을 주장하였다. 왈처는 이러한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 다원적 평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사회의 각 영역마다 다양한 정의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18. [출제의도]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아우구스티누스, 율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을 수용하였으며, 신의 은총을 통해 인간의 구원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수용하여 신학과 철학의 조화를 추구하였으며,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맹자의 왕도정치 이해하기

(가)는 맹자의 주장이고, (나)의 가로 낱말 (A)는 '왕수인(王守仁)'이며, (B)는 '태평도(太平道)'이다. 따라서 세로 낱말 (A)는 '왕도(王道)'가 된다. 왕도는 맹자가 주장하는 정치사상으로 통치자가 도덕을 바탕으로 백성[民]의 향산(恒産)을 보장하며,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는[與民同樂] 덕치(德治)이다.

20. [출제의도] 위정척사와 동학 사상 비교하기

(가)는 위정척사(衛正斥邪), (나)는 동학(東學) 사상이다. 위정척사 사상은 유교 이념을 수호하며 성리학적 사회 질서의 유지를 강조하고 서양의 문물을 사악한 것으로 여겨 배척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동학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평등주의를 바탕으로 신분적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의 실현, 즉 후천개벽(後天開闢)을 강조하고, 유교·불교·도교의 사상적 조화를 강조한다. 따라서 위정척사 사상에 비해 동학은 X축은 낮고, Y와 Z축은 높다.